

0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발생 위험도 증가...확산세 대비 축산물 수급안정 총력 대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2월 7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육용종계 약 2만6,000마리와 6만마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H5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육용오리 2건, 육용종계 2건이 발생하는 등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했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했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했지만 수평전파 차단 핵심은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와 조기 신고에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전북 육용 종계 농장도 AI로 확진됨에 따라 닭고기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기반 강화,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_ 농수축산신문_www.aflnews.co.kr



02

“축산업 성장 한계…스마트화가 해법”

스마트 축산 확산 방안 모색 정책포럼



스마트축산 확산방안 정책포럼 (사진제공=아시아투데이)

“우리나라 스마트축산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연평균 10% 이상,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 모색’ 정책포럼에서 “전 세계 스마트축산 시장은 2020년 기준 14억200만 달러에서 2025년 22억7,700만 달러로 연평균 약 1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스마트축산 확산을 통한 축산업 혁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과장은 “스마트축산이 축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고 기후변화, 동물복지 등의 대응 방안으로서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축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스마트축산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축산장비 기술수준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 함영화 애그리로보텍 대표도 “최근 축산업은 고령화에 따른 사육 농가 수 감소와 환경문제, 대체식품 논의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창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이인복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 교수, 유송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지원본부장, 서형석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 단 국장,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국장, 김학현 로즈팜 대표, 정경석 과장, 함영화 대표가 참여해 스마트축산 확산 해법을 찾기 위한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스마트축산 연구개발(R&D)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됐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www.asiatoday.co.kr

03

고병원성 AI 차단 가금류 유통·방역 실태 확인

농식품부 권재한 정책실장, (주)다솔·양동시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8일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광주시 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주)다솔을 방문해 계열 농장에 대한 자체 방역 관리 추진 실태를 확인했다. (주)다솔은 오리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및 차단방역 실태 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다솔은 권재한 실장에게 오리 축사



농식품부 다솔방문 대화 (사진제공=농식품부)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권 실장은 “계열사가 주인 의식을 갖고 계열 농장에 대한 연중 교육, 예찰, 차단방역 실태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자율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오리농장 시설 현대화 문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동전통시장을 찾은 권 실장은 가금류 유통·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권 실장은 “매월 두 차례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해 가금판매소, 계류장, 가금운반차량을 청소·세척·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시스 www.newsis.com

04

야생조류 AI 발생지역 방역상황 현장점검

전북환경청, 신속한 방역조치...가금농가 안전 힘 써야



전북환경청 AI현장점검 (사진제공=전라일보)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이 지난 12월 4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현장을 찾아 방역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월 27일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홍머리오리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청장은 방역 조치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송호석 전북환경청장은 “철새가 잔류하는 3월까지 AI 방역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통해 가금 농가의 안전에 힘 써줘 달라”고 말했다.

출처: 전라일보 www.jeollailbo.com



05

거창오리영농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2018년, 2020년, 2022년 각각 장학금 전달



거창오리영농회 장학금 지급 (사진제공=경남일보)

거창오리영농회는 지난 11월 21일 거창군수실을 방문해 장학금 300만원을 구인모 군수를 통해 기탁했다. 거창오리영농회는 오리 30만9,100수를 사육(경남 도내 1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2020년, 2022년 각각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서인성 회장은 “요즘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경남일보 www.gnews.co.kr

포토뉴스

06

겨울엔 ‘눈오리’



지난 12월 3일 오전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습지에서 아동이 눈오리를 만들고 있다.

출처: 뉴시스 www.newsis.com